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께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 제목 :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7-14절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16:7-14)

예수님은 부활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숨을 내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20:22)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 중에 그 중요성을 따진다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실 것을 잘 아시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자주 잊어버려도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며 다시금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이 오셔야 거짓이 우리 가운데 쫓겨가고 그래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들이 생긴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돕는 분이시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탐구하려고 할 때 도우시는 분이시고, 가르침을 받을 때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반면에 거짓을 탐구하려고 한다면 마귀가 그를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시키는대로만 하기 원해서가 아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 성령의 도우심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리고, 그 뜻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뜻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런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마치 파워핸들처럼 일하신다.

예수님도 우리가 마땅히 성령님을 의지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이 성령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로 성령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죄문제를 처리하

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며, 각종 은사를 주신다.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 이전의 내가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과 목표가 주어진다.

하나님편에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헤아린다면 많이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오늘 말씀 7절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유익이다. 그래야 세상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다.

왜냐면 죄의 값을 대신 치루셨으니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회복하셔야 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성령을 파송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방법이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오직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시면서, 그가 하신 일들을 증거하시고, 그가 진리되심을 증인된 입장에서 변호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편에서 생각하는 바람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편에서 생각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를 세가지로 드렸다.

1.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다.

-즉 예수님은 무엇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의도 보다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감당하셨다.

-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코치하러 오신게 아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러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모범을 보이거나, 험난한 길을 닦아서 가기 편하게 만드신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모두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죄의 댓가를 모두 지불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죄의 값과 그 저주로 인해서 갇힌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 그 감옥의 창살은 거짓이요, 그 감옥을 열어 재끼는 열쇠와 힘은 진리이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다.

2.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이요

-이미 하나님의 의는 완성이 되셨다. 왜냐면 예수님께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갇은 모욕과 고난을 당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으니 이제 당연히 본래의 보좌로 복귀하셔야 한다.

-보좌로의 복귀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편에서는 의가 된다. 정의 왕의 귀환인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가 된다.

-완전한 영광과 주권과 권세를 회복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예수님은 이제 당당하게

보좌에 앉아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게 되셨다.

-심지어는 아직 죄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으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면 즉시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

3.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은 세속의 주인, 곧 마귀를 뜻한다. 그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다.

-심판의 주 대상은 마귀. 심판의 주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만약 그가 마귀에게 속하였다면 마귀의 심판 가운데 그가 거하는 꼴이다.

-이미 마귀는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편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이미 전면전은 끝났다. 남은 것은 국지전이다. 모든 전쟁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아직 진리를 모르거나 죄와 그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능력이 생긴다. 능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상을 받는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